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8. 8. 3. (금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당자	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고성우/김민정, 주무관 김관호 - ☎ (044)201-4207, 4211/4215, 4216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이젠 부산에서 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가요!

- 김해공항 최초 중장거리 노선인 부산-창이노선 개설 -

- 지난 6월 북·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나라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로 향하는 하늘길이 더욱 넓어진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8월 2~3일 서울에서 열린 한-싱가포르 항공회담에서 양국간(부산-창이노선)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를 최대 주14회*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.
 - * 기종별로 운항 횟수가 다르며, A321-NEO / B737-MAX 기종 기준(약190석, 국내 LCC에서 도입 추진 중) 주14회, B777(300석 이상) 기준 주8회 운항가능
- 한-싱가포르 정상은 지난 7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-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인적·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양국 간 운항횟수 증대에 대하여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였고,
 -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번 한-싱가포르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항 가능 횟수를 증대하는 데에 성공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게 되었다.

- 특히 이번 항공회담은 양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운항 가능 횡수에 있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며,
 - 현재 중장거리 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부산-창이 노선 운항횡수 증대를 통해 동남권 주민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고,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응하며, 신남방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인적·물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” 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고성우, 김민정 사무관(☎ 044-201-4211, 42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